

## 電算界의 泰斗 成琦秀

경영과 컴퓨터 86.6. 『인물탐구』

### 한우물을 판 전산계의 산증인, 역사속에 묻힌 비문을 파헤치다

우리나라 전산계의 핵심적 모체로서 컴퓨터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낸 KIST 전자계산실(現 KAIST SEC). 국내 컴퓨터산업이 오늘날 자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KIST 전자계산실 탄생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KIST에 전산실이 설립된 것은 1967년 6월14일이다. 66년 준비작업을 거쳐 발족과 동시에 초대실장에 발탁된 成琦秀 박사는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망경창파를 헤쳐나간다. 혈혈단신으로 전산계에 투신한 成琦秀 박사의 선각자적인 예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성경말씀을 고이 간직한 채 컴퓨터 대중화의 기수이자 문화를 확산시키는 전령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한 우물을 계속 깊고 넓게 파나간 成 소장은 이제 전산계의 우뚝 솟은 泰斗로서 독보적인 아성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따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홍릉단지가 웬지 예사롭지 않게 보여진다. 아마 컴퓨터 역사의 비문들이 묻힌 KAIST가 대덕으로 이전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 SEC도 KAIST와 함께 이전하게 되나요

「물론이죠. 바늘가는데 실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KAIST가 이전하는데 SEC만 남아 있을 수는 없지요. 누가 홍릉의 주인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동안 20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줄곧 지내다보니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못내 아쉬움이 많아요.」

후배들 농담반 진담반으로 1인 독재한다고 야단법석

- '67년 전산실이 개설되면서부터 과학원과 맺은 인연을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

도 있는지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귀국할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보겠다는 뜻에서 컴퓨터 이용보급·확산에 진력하려고 KAIST에 입문했어요. 돌이켜 보면 원래 의도했던 방향과 지금하고 있는 일이 거의 부합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돈벌이에는 부적합하지만요. 그러나 영리목적의 주식회사보다는 공인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기 저기서 스카웃 제의도 많이 들어왔고 회사를 세워보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자리에 있다 보니 후배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일인독재한다고 야단들이에요. 후배를 키워주기 위해 이제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될 것이 아니라면서 압력을 넣기도 하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마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거나 하면 우리나라도 전산관련산업에 확실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때는 SEC가 한국전산원에 흡수병합될 거라고 설왕설래했던 적이 있었는데 관할권 다툼에 대한 소장님의 입장은 어느쪽이었습니까?

「정부의 하부조직체계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 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정책결정 여하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면 좋고 다른 데로 가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다만 어느 소속으로 되든 일하는데 불편만 초래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지요.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 정치적 로비 활동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나는 로비 문턱에도 못가는 인물입니다. 술담배 또는 요즘 흔히 하는 골프조차도 전혀 못하니까요.」

### 혈뜻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불과

- 교육연구망 사업관련 project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요. 이 관계로 DACOM과의 알력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SEC가 이 망의 전담지원기관으로 이미 확정은 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나 인원은

아직 할당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 망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85년에 이미 냈기 때문에 국내외 실태파악은 거의 다 된 셈이지요. 그래서 이미 구성된 SERINET, KIETLINE, SDN 대덕망 등 현존 네트워크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현실적인 전산망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우선 '88년에 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주무처인 EPB의 실무선까지는 필요 예산배정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컴퓨팅파워는 일본의 1/100도 안됩니다. 컴퓨팅파워의 차이는 곧 일인당 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나지요. 우리도 하루 빨리 교육연구망을 완성, 대학의 컴퓨팅파워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DACOM과의 알력관계가 있다는 말은 낭설입니다. 괜히 색안경을 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입장을 달리할 수 있고 적어도 일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건설해집니다. 이 사회가 한가지 유행으로만 딱 차있다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정치적 설득력이나 사업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 고지식하지만 진실성과 성실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장점으로도 표출되기도 하고 단점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 **국가적 대사를 개인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해선 안돼**

- 한국전산원에서 주도하는 감리업무 관련 문제로 DACOM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도 있던데요.

「SEC와 감리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본 센터 연구 인력중에서 이기식 박사와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신동필 박사가 김성진 원장님의 요청으로 한국전산원에 차출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기에는 본 센터에서 이직한 분들이 주로 감리업무에 관여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사주한 적도 전혀 없고 또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호락호락 따르겠습니까? 특히 신동필 박사는 매사가 치밀하고 철저한

분이라 맺고 끝는 선이 분명하지요. 국가적인 대사를 개인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셔야 되겠습니까? 단언컨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은 하버드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

成琦秀 소장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의 인생 history중에서 Epoch Making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成 소장은 '34년 경북 성주産으로 성주농업 5학년 때 6·25동란이 발발 학업을 중단하게 되지만 '54년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공대 항공학과에 입학한다. '58년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입대, 공사교수부에서 항공학교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후 뜻하지도 않은 행운이 그에게 찾아온다. '60년 4월 미항공우주과학지에 로켓트 탄도의 근사공식에 관한 논문(Two Analytical Results on Fin-stabilized Rocket Trajectory Under Quadratic Drag Law)이 발표된 것이다.

그는 '61년 드디어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면서 그의 진가는 여기서 여지없이 발휘된다.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든 기라성 같은 인재들 속에서도 하버드대학 300년 유사 이래 전무한 최단기(2년) 박사학위 취득자란 칭호를 부여받아 한국인의 우수성을 또 한번 입증해 보인다.

항공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가 어떻게 컴퓨터분야로 변신을 시도했을까? 그는 유학시절 컴퓨터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학적인 계산에 컴퓨터가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귀국하여 주로 서울대 경영, 행정 대학원에서 FORTRAN, OR 등의 컴퓨터 관련 과목을 강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성 박사는 이론적 연구의 한계성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현실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시도해보기 위해 컴퓨터 이용보급에 앞장서기로 다짐하고는 단위당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무분야로 돌아서게 된다.

'68년 공군대위로 예편, '67년부터 관여해온 KIST 전자계산실 터주대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 당시로는 전산실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였으나 컴퓨터의 공동활용차원에서 각기관마다 단독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다른 가동을 저하를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산

실이 탄생된 것이다. 개설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혼자 복치고 장구치는 1인3역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차 인원도 불어나 '69년 컴퓨터를 가동할 때에는 20여명의 요원이 확보 된다. 그 동안 이곳을 거쳐 사회로 진출한 사람은 연구, 기술, 기능, 행정 등의 분야에서 1000여명에 이르며 현재 정보산업계의 각 분야에서 선도자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 중 데이터통신 이용태 사장, 황규복 전무, 백인섭 소장, KETRI의 오길록 박사, 홍익대 전 산과 원유현 교수, 고려대 안문석 교수 가인시스템의 구지회 사장, 삼보컴퓨터의 이윤기 사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 연구개발업적 인정 받아 5.16 민족상 등 수장

성 박사가 컴퓨터를 실생활에 응용한 첫케이스는 '69년 프린터에 한글모아쓰기 기능을 집어 넣은 「한글라인프린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이다. 한글모아쓰기가 자동화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문라인 프린터의 기계적 장치는 그대로 사용하고 chain의 영문자만 한글로 갈아끼운 한글 모아쓰기 프린터가 개발된 것이다. 당시 이 아이디어의 출처에 대해 KIST와 CDK간에는 논쟁이 분분하자 결국 각자 한발씩 양보하여 합작품인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것을 필두로 속속 우수한 연구업적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주요 연구실적을 몇가지만 추려보면 「정부예산업무 EDPS화를 위한 연구」(70~72년), EDPS한글화에 관한 연구(71년) 「체신부전화요금EDPS개발연구」(71~74년), 「정보산업 토착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전 개발연구」(78~79년), 「원격탐사기술개발연구」(80년), 「대학입학예비고사업무 EDPS개발연구」(71~현재), 「정보화사회의 장기개발에 관한 연구」(82년), 「금융거래정보 및 세무효율화를 위한 전산화연구」(82~83년) 등이 있다. 성 소장은 현재까지 300여편의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공로가 높이 평가돼 '72년엔 국민포장, '76년엔 국민훈장, '78년에는 5.16 민족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용두사미의 결과 초래대선 곤란

- 과기처와의 합작품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산업 획기적 육성정책인 「수퍼프로젝트」는 계획과 실천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대형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인 슈퍼프로젝트의 대외적 발표나 예산확보 등 일체의 관련 내용은 과거처에서 주관했습니다. 다만 SEC에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 마스터프랜을 짜는데 지원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기식 박사팀과 강남분소 인력이 가담돼 약 10일 정도 호텔에서 합숙하며 Brain Storming 과정을 거쳤습니다. 30대 전후의 신진들이 모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여과과정을 거쳐 합일점에 도달한 작품이므로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입니다.

과거처에서는 그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었는데 작년 '86 아시안게임 전산화에 성공한 직후 국내외적으로 '잘했다'라는 칭찬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새롭게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타고 여세를 몰아 이번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내용상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과거 처 장관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보산업계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용두사미의 지지부진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Close-up되는 부문이 예산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당국(EPB)과의 1차 설명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련연구소 업계·학계 등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 어린시절 수학에 관한 한 타의 추종불허

- 학창시절을 보면 보통사람과 달리 진폭이 심했던 것 같은데요. 값진 경험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지요.

「6·25동란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잃어 학업을 중단하고 하루 아침에 가장이 되어 남은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지요. 그 당시 공민학교 영어선생을 지원했다가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마음에 실력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졸업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 모두가 풍지박산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유했었거든요. 그때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중이었던 형님 한분이 의용군으로 복에 끌려가 지금까지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후 대학에 들어가서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뵈려

조차 없을 정도로 가정교사, 번역, 조교생활 등의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중학교 중단전까지만 해도 수학에 관한 한 항상 경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 상고머리스타일은 유학 때 이발소에서 생긴 해프닝

- 소장님을 뵈 땀면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 그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리 정하셨는지요.

成 소장은 멋쩍은 듯 한참 동안 웃기만하다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이내 말문을 연다.

「그거요. 출발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학 직후 낮설고 물설은 데다 언어마저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머리를 깎게 되었어요. 회화준비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게 되니 이거 말이 통해야지요. 등록절차도 종이에 써서 의사소통을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이발소에 가서 앉으니 이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몇분 후에 거울을 보니 울부짖너 머리처럼 완전 밀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이발사 말이 「Crew cut」이었던 같아요.

뱃사람 머리처럼 깎으라는 말이었는데 그대로 O.K한 꼴이 되고 말았지요. 그 뒤로는 다시는 이발소에 안가고 그냥 집에서 거울보고 가위로 깎았어요. 시간과 돈 모두 절약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화된 셈이지요. 지금도 친척 어른들중에는 머리스타일을 바꾸라고 잔소리가 심한 편이지만 계속 고수할 겁니다. 이렇게 영어 한마디 잘못 알아들은 것이 머리스타일을 고정시킨 결과가 되었어요.」

### 민간영역 침해 안해, 공공의 일에만 참여 .

-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경우가 가끔 있을텐데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창기만 해도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KIST뿐이었으므로 영역침해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부터 일감부족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자연 경쟁체제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곧 수요가 공급에 못미치는 공급과잉 현상을 빚게 되어 여러 가지 구설수가 횡행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순수 민간영역을 침해한 일은 없으며 다만 국가이익이나 명분에 부합될 수 있는 공공의 일을 주로 하고 경쟁상태에 있지 않는 일은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SEC가 맡을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민간기업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에 한해 SEC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실명제 전산화추진으로 예산삭감당하기도**

- '67년부터 지금까지 KAIST 전산파트에서 재직중에 있었던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요.

'69년 6월1일은 본원에서 컴퓨터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포트란과 코볼이 돌아가는 CDC3300 컴퓨터가 본원에 도입된 것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건이었지요. 우리나라 컴퓨터 대중화의 문을 활짝 열게 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또 마치 이날은 우리집 막내아이의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그후 '70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2400BPS의 데이터통신 개통식이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에서 있었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성공적인 개통장면을 점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통령께 정부의 행정업무 전산화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여러 건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들 건의안을 채택해주셨습니다. 그중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덕수상고 컴퓨터교육이 실시되었고요.

그리고 '82년 실명제 전산화를 할 때에는 많은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으로 이 실명제 전산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과거처 장·차관님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했지요. 그러나 이런 압력에 굽히지 않고 소신껏 처리했지요. 이 일로 해서 후에 지시를 어겼다고 예산을 삭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처리 된 뒤에는 결국 여기저기서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한 일들이 20년 동안 경험들 속에서 그래도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들입니다.」

###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학자답게 청빈낙도하는 기풍 생활화**

어느 일요일 오후 기자는 영동우체국 뒷편에 있는 成 소장의 집을 찾았다. 마침 온가족이

집에 있었다. 成 소장의 가족은 부인 嚴玪林 여사(48세), 장남 鎭沅군(서울대 수학과 4년), 장녀 明喜양(연세대 물리학과 2년), 막내 鎭一군(영동고 3년) 등 모두 4명이다. 집안 어디를 봐도 호사스런 장식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청빈낙도하는 학자답게 서민적인 검소한 기풍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관문 바로 옆에는 SEC강남분소, 부산지소와 연결된 각 터미널과 PC 한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부인 嚴 여사는 成 소장을 가리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가정에 충실한 편이라 아주 만족스럽다고 귀뜸해 준다. 그러나 단 한가지 자녀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만은 가끔 의견의 차가 생긴다며 成 소장의 교육관을 설명한다. “아빠께서는 애들에 관한 한 자유방임주의를 택하고 있지요. 각자 자유의사에 맡겨 무엇이든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애들 공부가 소홀해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런 아빠를 보고 자녀들은 한결같이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 상담역은 항상 선생님도 친구도 아닌 아빠입니다.” 그만큼 成 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격의없이 지낸다. 때론 아빠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며 때론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자유의지를 키워주다보니 이들에겐 무관심한 아빠로 보일 수도 있다. 막내인 진일군은 “너무 간섭을 안하시니까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착각하기도 해요.” 라며 투정 어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 정직·성실·최선이 지고의 가치이자 전략

成 소장은 사육신 중의 하나인 성삼문의 후예로서 알게 모르게 곧은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그의 피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유학시절의 상고머리스타일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고집, 금주, 금연하는 고집, 근무시간외에는 사교모임에 참석치 않는 고집,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고집, 적당주의를 배척하는 고집, 그의 이런 고집들이 모여 오늘날의 그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영을 하고 주 1회씩은 테니스를 치며 가끔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는 성 소장.

정직과 성실, 그리고 최선을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成 소장, 그는 20여년간 전 산계에서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정보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다. 이런

그가 컴퓨터 산업의 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이상 우리 정보산업은 “세계속의 한국”이란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리라 여겨진다.